

볼로냐 도시혁신재단의 역사유산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방보람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오늘날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 기준 인구의 91.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도시들은 고유의 지역특성과 함께 지나친 인구 밀집과 편중된 기능 등으로 교통·환경·일자리·주택·빈곤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북부 이탈리아에 위치한 볼로냐(Bologna)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중세시대 건축물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볼로냐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를 위해 도시혁신재단(La Fondazione per l'Innovazione Urbana: FIU)을 설립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계획과 정책을 연구하고 실험해 왔다. 이 글에서는 볼로냐 도시혁신재단이 역사유산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한 도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 중심지를 출발점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볼로냐

볼로냐는 이탈리아 중심부에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1088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볼로냐 대학이 있고, 오랜 문화유산이 함께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물자와 인력이 드나드는 교차로로서 북이탈리아의 주요경제 도시 중 하나이자 자원봉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NGO 등 총 1,400여 개의 시민 단체가 시 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포용적 도시로 알려져 있다. 볼로냐의 경제는 서비스 분야, 농업 및 산업, 문화 산업 등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등 다면적 도시역할을 통해 풍요로운 경제와 넉넉한

재정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중심부 주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볼로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중심지 통합전략 마련

볼로냐는 역사 중심지 내 도심주택 복원, 대형문화공간 복원, 유희공간의 공원 활용 등 도심 재생을 출발점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시작하고자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 중심지 거주가능성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역사 중심지 거주가능성 통합 전략

1. 역사적 도시의 도시 구조 보존을 촉진하고 건축 유산, 특히 역사적 건축 및 증언적 관심이 있는 유산의 회복을 장려한다.
2.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성을 위해 공공공간을 재개발하고, 대중교통 통합 및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3. 문화 및 상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접성과 주거성을 강화하는 통합적 조치를 통해 도시 환경의 활력을 촉진한다.
4. 기후 변화 회복력 및 적응을 위해 역사적 경관과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녹색건축 장려와 환경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볼로냐 향후 미래전략
출처: 볼로냐 시청 내부자료.



복원 작업 중인 두 개의 탑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트램노선 개선과 기초 침하로 위험해진 두 개의 탑(가리젠다의 탑, 아지넬리의 탑) 복원을 목표로 중심지를 재생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이 불편해진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 트램 교통계획과 2035~2050년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런던, 코펜하겐 건축스튜디오와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도시혁신재단의 역사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

볼로냐 도시혁신재단은 행정·대학·기업·시민 간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도시 변화에 대한 연구, 개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종합 기관이다. 도시공간과 공공건축의 계획 및 설계, 지속 가능한 이동성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와 실험, 혁신을 시도하고 문화 기반 도시재생, 도시문화 정책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볼로냐 대학교, Acer Bologna, BolognaFiere 등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혁신재단은 혁신에 기반한 여러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해 도시 내 형평성, 접근성, 가치화 및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공공장소, 생태 및 기후 재생, 자연, 행정 및 사회 혁신, 디지털 민주주의, 사회 및 환경 정의를 테마로 도시 변화와 혁신 과제를 수행해 왔다.

5개의 광장 등 ROCK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공간 개선

ROCK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결과물을 내면서 같이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볼로냐는 3~4년간 약 200만 유로의 예산으로 연구, 실험,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과거 로시니 광장



녹지공간과 자전거 정류소로 개선된 로시니 광장



공유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청 안뜰

이 중 5개의 광장(Le cinque piazze) 프로젝트는 대학 간 연결과 가치를 창출하여 볼로냐의 정체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로, 볼로냐 단과대학을 연결하는 5개 광장은 학교, 단체, 시의 의견 수렴(창구, 회의)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로시니 광장은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었으나, 수십 년 전 주차장으로 조성·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도심 폭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민 250명 이상이 참여 연구실 ‘U-Lab’에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로시니 광장에 녹지공간이 조성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구상하고 디자인한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2020년 여름 문

화 행사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녹지공간과 자전거 정류소 등을 배치하여 현재까지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주차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시청 안뜰을 개선한 다시 중앙으로 프로젝트

‘다시 중앙으로(Back in the center)’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볼로냐 도심 공공장소의 보행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행자의 이동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장소의 정비, 일부 지역의 가치평가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녹지와 목재를 통해 볼로냐 시청의 안뜰 환경을 개선하였다. 자동차와 스쿠터의 접근을 제한하고, 야외용 목재와 열다섯 그루 나무를

통해 안뜰 전체가 지역주민의 휴식과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쾌적하게 개선되었다. 계단식 좌석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우물’ 주변 과 구조물 측면에 올라가는 나무, 석재, 코르텐 강철 재료를 활용하여 화분과 벤치를 조성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훌륭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복원을 통해 재개관한 시네마 모데르니시모와 마조레 광장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시네마 모데르니시모(Cinema Modernissimo)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로자니 궁전(Palazzo Ronzani) 지하공간을 2015년부터 복원하여 볼로냐 지역주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공간을 도시로 되돌린 프로젝트이다. 시네테카 디 볼로냐(Cineteca di Bologna)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개장하여 독특하고 소중한 도시 공간이 회복되었으며, 이곳에서 고전, 현대 영화 상영과 함께 영화 복원, 영화 현장의 주인공인 예술가 및 작가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조레 광장 공간을 활용하여 복원된 영화를 매월 8월에 야외에서 상영하는 등 문화행사 공간으로 도심 내 역사공간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야외 영화 상영관으로 활용되는 마조레 광장

나오며

도시혁신재단은 최근 2024년 7월 8일자로 Pietro Giacomo Rusconi 재단, Villa Ghigi 재단 등 2개의 재단과 함께 IU Rusconi Ghigi 재단으로 합병되었다. 볼로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3개의 재단의 합병을 통해 앞으로 도시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된 IU Rusconi Ghigi 재단이 주요 주제로 제시한 공공장소, 자연, 디지털 민주주의, 행정 및 사회 혁신, 생태 및 기후 재생 분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해나갈지 기대된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것이다. 볼로냐 도시혁신재단의 시도처럼 다양한 시도와 사례들이 만들어질 때, 도시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지속 가능하면서 혁신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문화유산, 역사적 공간을 단순히 보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보존·활용을 통해 사회가 공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 해가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 2 Cinema Modernissimo 홈페이지. <https://cinetecadibologna.it/luogo/cinema-modernissimo/>
- 3 Fondazione Innovazione Urbana 내부자료.
- 4 Fondazione Iu Villa Ghigi. (2024). Il laboratorio per la città che vogliamo fondazioneiu.
- 5 Fondazione Iu Villa Ghigi 재단 홈페이지. <https://www.fondazioneiu.it>